

‘아차’...병원·약국에선 “마스크 써야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병원과 약국 유지 “무의식적으로 노마스크로 오는 환자 종종 있어” 약국, 10명 중 3명 노마스크...안약·파스 등 구입 “병원 들렀다 약국 오는 경우 대부분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벗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감염 우려가 있다고 안내해 드리면 바로 착용하시곤 합니다.” 20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A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31)씨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노마스크로 병원을 찾오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는데, 대중교통 해제로 더 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일반 약국이나 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다 보니,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문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 의무를 알고도 무의식적으로 벗고 들어온 이들이 있는 반면, 병원 등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내에 따라 부랴부랴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다. 이씨는 “요즘 밖에서 마스크를 잘 쓰지 않다 보니 생각 없이 들어왔다”며 “아무래도 병원은 쓰는 게 나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시민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 착용 의무가 해제됐음에도 상당수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등 아직은 마스크 완전 해제를 머뭇거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동작구 B병원 관계자 안모씨는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며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약국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C약국에서

30여분간 지켜본 결과, 10명 중 3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했다. 병원과 달리 단순히 상품 구입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마스크에 대한 경각심도 비교적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실제 C약국을 방문한 시민들 대부분이 안약이나 파스, 음료 등 병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물건을 구입했다. 약사 이모(26)씨는 “밖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잠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일이 쓰라고 하기 어렵다”며 “이런 걸로 실랑이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병원을 들렀다가 약국으로 오는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김모(61)씨는 “보통 병원에 갔다가 오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들어온다”며 “충돌이나 갈등은 딱히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크라 참전’ 이근, 법원에서 “X신아” 욕설하며 유튜버 뺨 때려

여권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 종료 후 채무 관계 묻는 유튜버 폭행...“X신아” 욕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튜버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유튜버 ‘구제역’이 참관했는데, 재판 종료 후 그는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채권·채무관계 관련 질문을 던졌다. 법정 복도를 지나던 이 전 대위는 이에 “X가 X신아”라며 손바닥을 들어 구제역의 얼굴을 한 대 쳤다. 이 전 대위는 폭행 이후에도 구제역을 몇 초간 노려보다 다시 걸음을 옮겼다. 구제역은 폭행 이후 경찰에

신고로 인해 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이날 첫 재판에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해당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정 판사는 다음 달 24일 이 사건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위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



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별건 재판으로 진행되다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혐의와 병합됐다. 최이슬기자



서해바다 수호자들을 기리며 서해수호의 날을 나흘 앞둔 20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박동혁함 등 유도탄고속함(PKG) 승조원들이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노점상 강제철거에 상인들 ‘반발’

동대문구청, 지난해 7월부터 30개소 강제철거 노점상인들 “구청이 생존권 일방적으로 침탈”

서울 동대문구 지역 노점상인들이 동대문구의 노점상 강제 철거를 규탄하고 철거한 노점상을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종로지역연합회(연합회)는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동대문구청이 30~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한 상인들을 게고장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쫓아냈다”며 “우리의 생존권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대문구청(구청)은 지난 16일 밤 11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노점 6개소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노점이 있던 자리에는 화단을 놓아 노점을 다시 설치할 수 없게 했다. 구청은 무질서한 노점을 정비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던 노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시행된 ‘거리가게 허가제’를 법과 원칙대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동대문구에서만 30개의 노점이 철거됐다. 이에 정병찬 연합회 지역장은 “우리가 노점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30년 넘게 이 한 자리를 지켰다”며 “갑자기 노점을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고 (노점상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라고 뽑은 구청장이 한 마디의 계고도 없이 야간에 우리의 노점을 무자비하게 부수고 그 자리에서 화단을 갖다 놔다”며 “그러고는 화단을 공공기물이라고 하면서 건드리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다른 갈 곳도 없다”며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시켜줄 것을 구청 장한테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노점상 문제는 계도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는 시민 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슬비기자



여수소방, 유월드 테마파크 리프트 멈춤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5일 관내 유월드 테마파크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강진소방,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 펼쳐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불 예방 캠페인을 강진여객버스터미널에서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동부소방, 전통시장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최근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대인시장에서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이슬비기자



보성경찰, 2023년 치안성과 향상 보고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지난 16일 보성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치안성과 향상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주전남병무청, 출근길 직원 대상 꽃화분 나눔행사
광주전남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지난 20일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튜립 화분과 사탕을 나누며 화훼농가 돕기에 동참하였다. 최이슬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직접 찾아가는’ 군부대 순회교육 실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제11공수특전여단을 방문하여 군 간부 및 용사 4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제도 및 제대군인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군부대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김재환기자